

원산지관리사 기출문제 출제경향 분석(2012년~2015년)

국제원산지정보원



1. 원산지관리사 시험 개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1회 시험은 2010년 6월 치러졌으며, 오래된 자격증은 아니지만 국가공인자격증의 하나인 원산지관리사는 FTA 활용기업에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불릴 만큼 인정받는 자격증이 되었다. 2016년에도 총 3회로, 17회(4월 30일), 18회(8월 27일), 19회(11월 26일)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 과목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출문제를 확인해보고, 개별 시험의 출제경향을 시험을 치르기 전에 대비해보면 시험준비가 수월해질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과목별 시험 출제경향을 속속들이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본다. 한편, 2016년 원산지관리사 교재가 개편되어 해당 내용은 기존 교재 내용을 기준으로 출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을 밝혀둔다.

2. 출제경향 분석

[FTA 협정 및 법령]

FTA 협정 및 법령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출제되었다. 제2편(FTA 관세특례법)에서 24.3%(73문제)가 출제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3편(원산지증명제도)에서 19.7%(59문제)가 출제되어 2015년부터 예년보다 출제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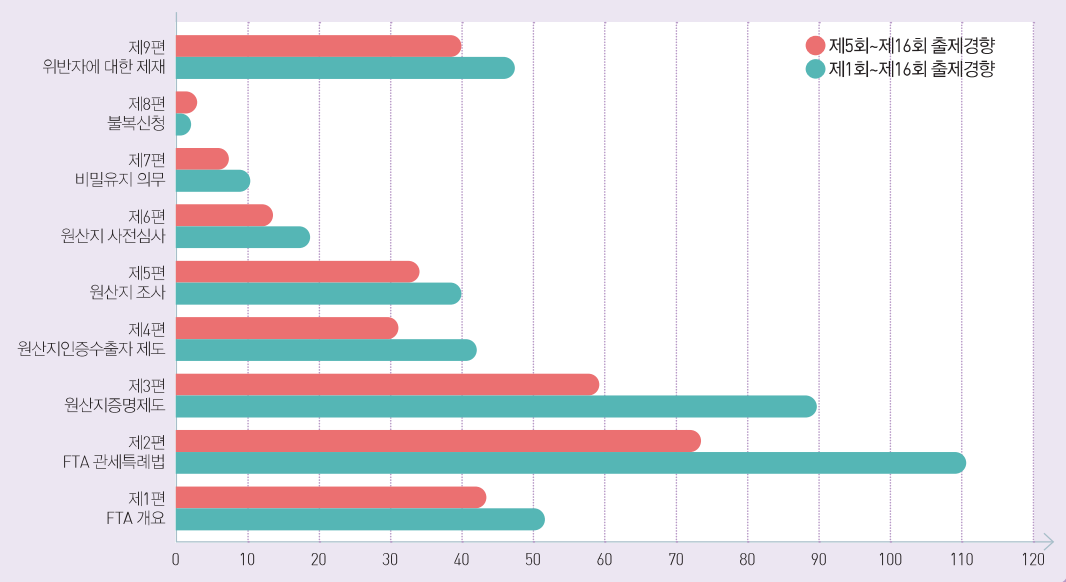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제1편(FTA 개요) 14%, 제9편(위반자에 대한 제재) 13.3%, 제5편(원산지조사) 11%, 제4편(인증수출자제도) 10.3% 등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편의 비중이 예년보다 확대되고 있다.

이 분야들은 FTA 관세특례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FTA 활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꼭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 출제되므로 유의하여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6편(원산지 사전심사) 4.7%, 제7편(비밀유지 의무) 2.3%, 제8편(불복신청) 0.3% 등의 출제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하여 개념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FTA 협정 및 법령”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 협정 및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학습하고 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전략으로 주효할 것이다.

〈출제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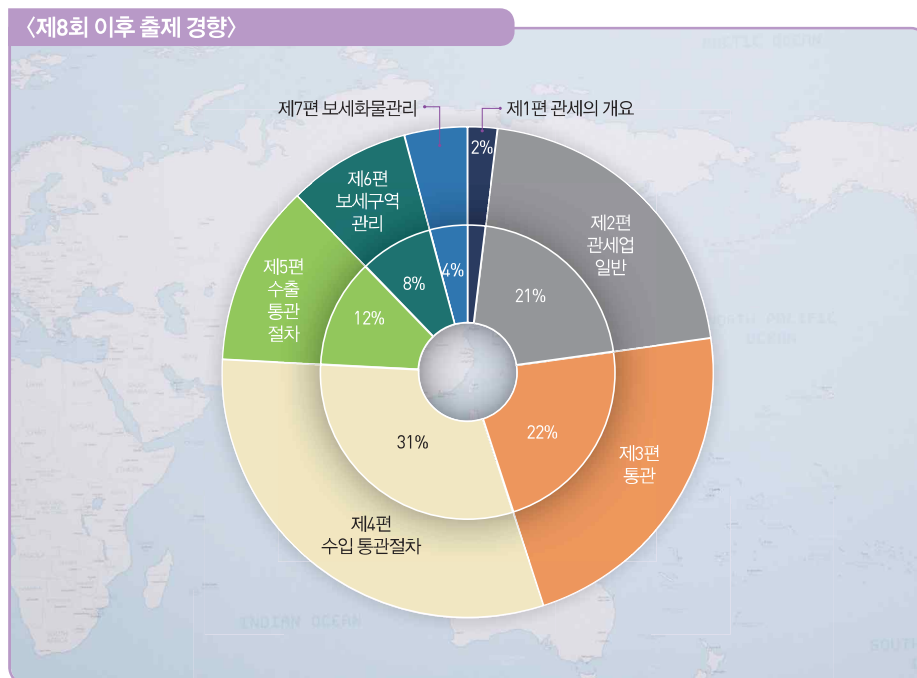
[수출입통관실무]

수출입통관실무는 제4편(수입통관절차)에서 31%(84문제)가 출제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제3편(통관)에서 22%(65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들은 실제 수출입통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교재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분야는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제2편(관세법 일반)과 제5편(수출통관절차)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 분야는 각종 FTA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는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비율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6편(보세구역관리)과 제7편(보세화물관리)는 각각 8%와 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2013년도 수출입통관 교재에 보세제도가 추가되어 2013년도 이전에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전보다 출제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제8회 이후 출제 경향 참조)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특히 제2편에서는 “과세 및 부과·징수 등”, 제3편에서는 “통관요건”, 제4편에서는 “수입신고”, 제6편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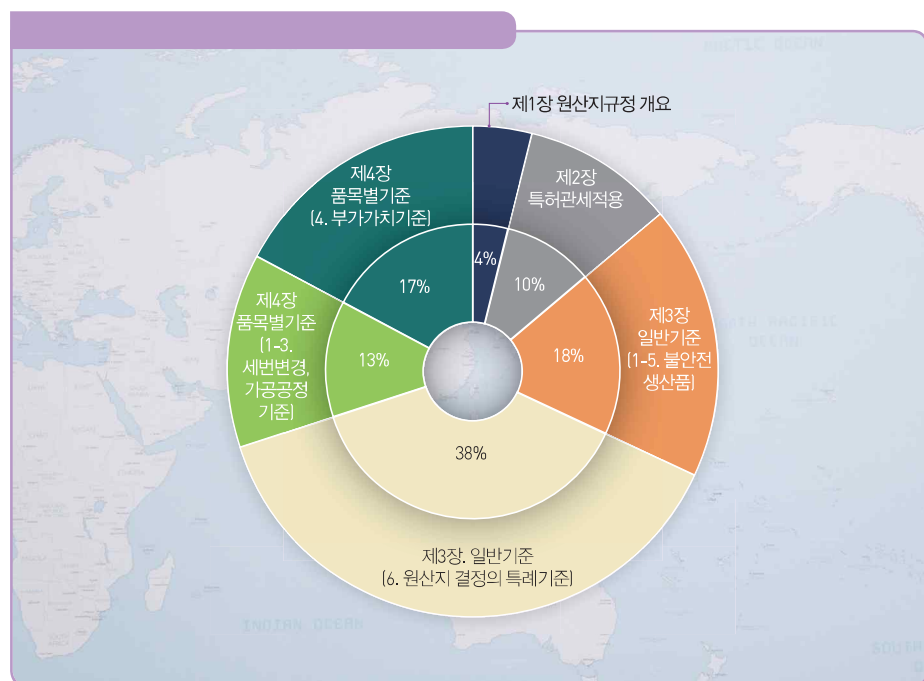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은 제3장 일반 기준 가운데 원산지 결정의 특례(보충)기준에서 38%(114문제)가 출제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제3장 일반기준의 완전생산물·역내생산원칙·충분가공원칙에서 18%(54문제), 제4장 품목별 기준의 부가가치기준에서 17%(51문제),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에서 13%(41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제2장 특허관세적용조건 가운데 거래당사자 요건·운송요건 등에서도 매회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이 분야들은 FTA 원산지결정기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숙지를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도 높은 출제비율이 지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 과목에서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교재와 협정문을 중심으로 전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협정별 차이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숙지와 함께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본으로 한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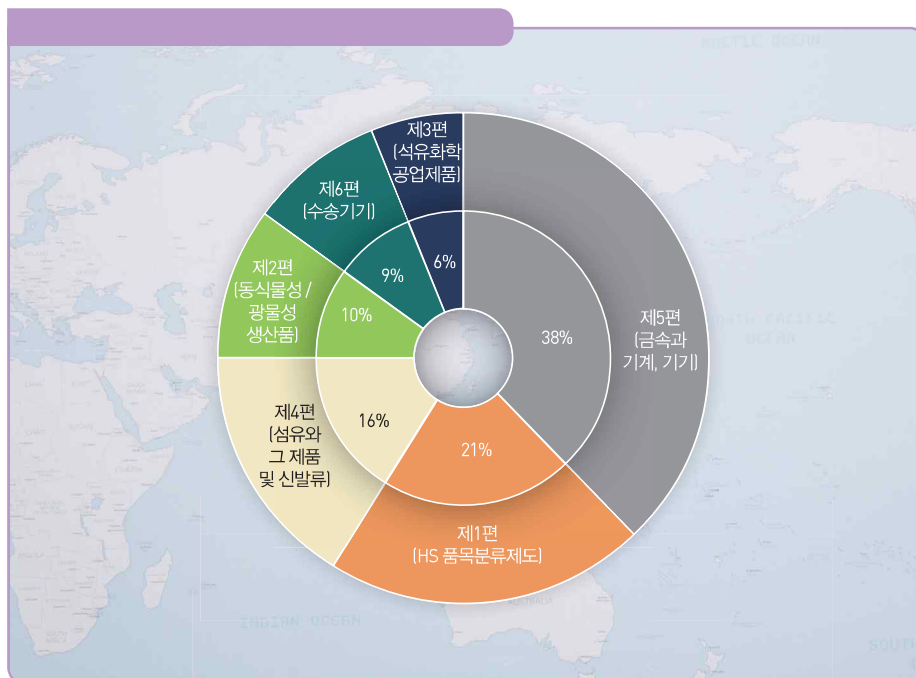
[품목분류]

그간 16회에 걸쳐 출제된 총 400문제의 유형을 분석하면, 제5편(금속과 기계·기기)이 38%(151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다음으로는 제1편(HS 품목분류제도)은 21% (85문제), 제4편(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은 16%(62문제)가, 제2편(동식물성 / 광물성 생산품)은 10%(41문제)가 각각 출제되었다.

이 분야는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각종 FTA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는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비율이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편(석유화학 공업제품)은 6%(25문제), 제6편(수송기기)은 9%(36문제)로 낮은 비율(6%)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회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며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향후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특히 제1편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편에서는 “동·식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 제4편에서는 “섬유와 섬유제품”, 제6편에서는 “자동차”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제5편은 우리나라 수출입규모나 물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므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2016년 원산지관리사·원산지실무사 시험일정 안내

원산지관리사

1. 시험일정

회차	시행 일자	원서접수 기간
17회	4. 30	4. 4 ~ 4. 13
18회	8. 27	8. 1 ~ 8. 10
19회	11. 26	10. 31 ~ 11. 9

2. 주요 내용

- 시험 시기: 연 3회
- 응시 대상: 제한 없음
- 출제 형태: 4 과목별 각각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 합격 기준: 과목당 100점 기준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시행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실무사

1. 시험일정

회차	시행 일자	원서접수 기간
2회	8. 27	8. 1 ~ 8. 10
3회	11. 26	10. 31 ~ 11. 9

2. 주요 내용

- 시험 시기: 연 2회
- 응시 대상: 제한 없음
- 출제 형태: 2 과목별 각각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 합격 기준: 과목당 100점 기준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자격증 발급기준: 시험합격증 +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교육 이수증[※]
- [※]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이 발행한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교육 이수증
- 시행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전문가로 꿈을 이루게 해준 원산지관리사

“출제경향 파악이 핵심”

윤원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산 FTA이행지원팀



“에, 프, 티, 엠, 초, 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원산지관리사 합격자인 윤원채 씨가 품목분류 실무를 공부하면서 사용한 방법이다.

에프티엠초아는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의 HS 4단위 호의 용어인 “에틸렌의 중합제품” /

“프로필렌의 중합체 등” / “스티렌의 중합체” / “염화비닐의 중합체 등” /

“초산비닐의 중합체 등” / “아크릴의 중합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윤원채 씨의 공부비법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원산지관리사 공부비법과

원산지관리사로서 일했던 김미림 씨의 생생한 경험을 들어본다.

서두

안녕하세요? 저는 제15회 원산지관리사 시험 합격자인 윤원채 입니다. 원산지관리사를 공부하면서 FTA에 관한 관심과 관련 기초적인 지식을 쌓았고 이를 기회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FTA 전문가로서의 꿈을 갖게 되었기에,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더 큰 꿈을 갖게 도 외준 원산지관리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제 경향 살펴보기

시험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수록, 우선 기출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지와 과목마다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산지관리사 시험과목 중 품목분류나 원산지결정기준은 여타 다른 무역 자격증 시험에 출제되지 않기에 무역 관련 학습을 하여왔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출제 경향 파악은 더욱 중요합니다.

가령, 많은 분이 생소함으로 인해 학습하기 힘들어하시는 품목분류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주로 제16부 ~ 제18부 부분에서 많은 빈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에서도 기계류 관련 수출입 거래가 활발하기에 이러한 실무적 경향을 시험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7부와 제11부, 최근에는 제1부~제4부 부분에 대한 출제 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출제 경향을 파악한 상태에서 학습하시면 분명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 합격에 더 빨리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구하는 방법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해설이 첨부된 기출문제 모음을 보고, 문제도 풀어보고자 할 시에는 과목별 기출문제집을 FTA 원산지 아카데미 홈페이지(www.ftaedu.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별 학습 방법 (총 학습 기간: 약 5주)

- FTA 협정 및 법령 & 수출입통관 실무

이 두 과목을 묶은 이유는 공부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두 과목은 다른 두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학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FTA 협정 및 법령 과목 공부는 원산지 결정기준 과목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기준 과목 내용을 함께 상기시키며 학습하기 좋습니다. 기체결한 협정 수가 많다고 해서 학습량으로 인해 처음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U, EFTA, 터키의 경우 일부 내용을 제외하곤 거의 비슷하며, 미국, 캐나다 등 페루를 제외한 아메리카 국가들과 맺은 협정 끼리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 협정 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선 정리하시고 숙지하신 뒤, 협정 간의 차이점이나 타 협정과 달리 특이한 내용 부분은 따로 정리하셔서 학습하시면 효율적인 학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출입통관 실무의 경우에는 관세법 부분 중 통관, 보세구역 부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학습을 진행할 시에는 통관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시고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입 신고 → 검색(경우에 따라 사전 심사) → 수리 및 사후 심사”** 이렇게 큰 흐름을 머리에 각인시킨 다음,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보세작업 등 보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관과 연결해 정리하시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흐름을 이해하면서 학습한다면 수출입통관 실무만큼 흥미로운 과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본인만의 학습 방법을 진행하시면 충분히 평균 70점 이상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실무

“에, 프, 티, 엠, 초, 아”

이게 무슨 괴상한 단어냐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의 HS 4단위 호의 용어인 “에틸렌의 중합제품” / “프로필렌의 중합체 등” / “스티렌의 중합체” / “염화비닐의 중합체 등” / “초산비닐의 중합체 등” / “아크릴의 중합체”의 첫 글자를 한자씩 따서 암기한 것입니다.

품목분류 실무는 많은 수험생이 처음 접할 시에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수록 서두에 언급한 “출제 경향 살피기” 학습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품목분류 실무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0류 등 기계류, 전자기기, 광학기기 분야에서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이후 제11류 의류 부분이나 제39류 플라스틱, 제40류 고무 순으로 출제 빈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되, 우선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를 대략 훑어보면서 품목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중요 주 규정과 호의 용어를 숙지하면서 특히 기계류 관련 류를 학습할 시에는 앞글자를 따서 호의 용어를 암기하시면, 시험장에서도 문제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도 생소함으로 인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한 내용은 여타 무역 자격증 시험에서도 출제되지 않는 부분인 만큼 기존의 무역 관련 전공자들도 처음에는 접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는 우선 처음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기준안에 기본 원칙과 보충기준이 있고 품목별 기준의 종류인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학습하신다면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한 꿈

앞서 언급한대로 효율적이고 규칙적인 학습을 진행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산지관리사에 응시하는 상당수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인 걸로 확인된 만큼 미래를 향한 꿈을 안고 본 자격증을 준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격증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실무 관련 기본 지식을 쌓는 과정이기에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 업체 등 FTA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서는 원산지관리사를 우대해주고 입사 시 가산점도 존재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이 밝은 미래를 향해 학습에 열심히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선택지를 준 원산지관리사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선택지를 준 원산지관리사

김미림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저는 무역회사 취업을 계획했으나,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먼저 습득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역 관련 교육(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의한 강사(대학 교수)가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몇 가지 관련 자격증을 추천했는데, 그 중 특별히 추천한 자격증이 바로 '원산지관리사'였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개의 무역 관련 교육을 수강하게 되면서 '관세사'의 꿈을 키웠고, 그 중 알게 된 이 자격증이 관세사와도 꽤 밀접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 당시 '원산지관리사'는 막 공인 자격증으로 전환 된 시점이었고, 홍보가 지금보다 잘 되어있지 않아 반신반의하며,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지금은 원산지관리사 필수 이수교육이 폐지되어 시험응시가 바로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필수요건이던 이수교육(3일, 24시간)을 신청 후 수강했습니다. 그 후 40일간의 독학으로 9회(공인 2회)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원산지관리사로 근무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로서의 업무를 지속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목표는 '관세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자격증 공부 중입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원산지관리사'로서 짧은 시간 근무하며, 느꼈던 바를 간단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로 상주관세사와 업무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FTA 관련 업무(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련 서류 작성 등)를 지원하여 수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있던 곳이 지방이라, 업계종사자들의 인식 부재, 전문 인력 및 정보의 부족으로 FTA 활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A 업체의 담당자는 미국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C/O') 발급을 위해 구매자가 요청한 양식과 비슷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C/O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 서류가 갖는 중요성과 책임조차 몰랐습니다. 심지어 작성서류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A 업체는 우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수출하였고, 수입상(미국 측)은 수출상(한국 측)이 발급하여 송부한 한-미 FTA C/O를 통해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도 그 해에 1~2차례 정도 한-미 FTA C/O 발급에 관해 문의했고, 해당 C/O를 발급하여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원산지 관리의 체계화(전문화) 및 보편화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원산지관리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 전담인력의 전문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 밖에도 C/O 발급 및 원산지관리체계 구축뿐 아니라 사후검증도 대비하기 위해서 원산지관리사의 필요성 및 인지도 보급화 역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격증 취득 후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취업 관련 정보를 꾸준히 메일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하며 작은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특성화고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였습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모의고사반’을 운영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학습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욱이 지역적 특성상 무역 관련 직업이 생소할 수밖에 없던 학생들이 이를 통해 원산지관리사, 관세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 무역업 종사자로서의 또 하나의 진로 선택지를 준 것 같아서, 그리고 그들이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로 기억됩니다.

이렇게 짧지만,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원산지관리사’로서 근무하면서, 절대적인 큰 도움은 주지 못했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체와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시작은 무역 관련 지식이 전무 했던 취업준비생이었지만,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하였고, 자격증취득을 위해 공부했던 부분은 취업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통해 본 목표인 관세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